#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최원실** 허태호*** 이상현****

Keywords
역 귀농·귀촌(urban-to-rural migrants' returning to urban areas), 동기 요인(motivation factors), 의향과 행동(intention and behavior), 순서형 로짓 분석(ordered logit model), 다항 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otivation types on urban-to-rural migrants' intention and behavior to re-migrate to urban areas. The motivation types are classified into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factors. By using the ordered logit model, we analyze the effect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factors on the intention to re-migrate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effect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factors on the actual decision to re-migrate to urban areas is estimated based on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rban-to-rural migrants who put economical reasons first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re-migrate to urban ares. On the other hand, it is estimated that urban-to-rural migrants who took prior education before migration or moved with their families are less likely to decide to return to urban areas.

**차례**

1. 서론
2. 분석 모형 및 방법
3. 분석 결과
4.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귀농·귀촌자 장기추적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수행하였으며,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mail: shl@kangwon.ac.kr

# 1. 서론

농림축산식품부 외(2019) 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2,770명에서 2018년 490,330명으로 증가하였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용 증대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시현·최용욱 2014; 김정섭 외 2016; 김경덕 2012; Von Reichert et al 2014).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촌 생활을 지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현상이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세계일보 2018. 9. 27.; 마상진 외 2016; 윤순덕 외 2017). 즉, 농촌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를 통해 나타나는 농촌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역 귀농·귀촌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는 도시민의 농촌 지역 유입을 위한 관점에서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거나(이희찬 외 2006; 우성호 외 2015; 심문보 외 2019), 귀농·귀촌 만족도(허철무 외 2014; 이지홈 외 2017; 김경호 외 2018), 귀농·귀촌 실태와 과정(강대구 2007; 박대식 외 2015) 등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귀촌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거나(장민기 외 2014), 역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윤순덕 외 2017), 역 귀농·귀촌에 어떠한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마상진 외(2016) 등의 연구에서 귀농·귀촌인이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역 귀농·귀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밝히고,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함께 고려한 귀농·귀촌 실패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은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되는데, Williams and Jobes(199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그 동기 유형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동기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은 경제적 안정이 이주의 조건으로 만족되어야 하며, 비경제적 동기로 이

주한 귀농·귀촌인은 농촌의 어메니티나 삶의 질 등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역 귀농·귀촌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귀촌 관련 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귀농·귀촌 동기를 유형화하거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민수·박덕병 2012; 마상진 2018). 강대구(2007) 등의 연구는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농업교육 배경, 귀농 초기 및 후기 농업의 특성, 미래 농업 계획 및 농촌 거주 의사에 대해 비교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역 귀농·귀촌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획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의향은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Ajzen 1991). 한편, 의향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행동은 실제 결정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의향과 행동 간에 차이(Intention-behavior gap)가 발생할 수 있다(Ajzen et al. 2004; Sheeran and Webb 2016).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귀농·귀촌인의 재이농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농·귀촌 동기 유형을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유형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의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과 실제 역 귀농·귀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과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분석 방법과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 2. 분석 모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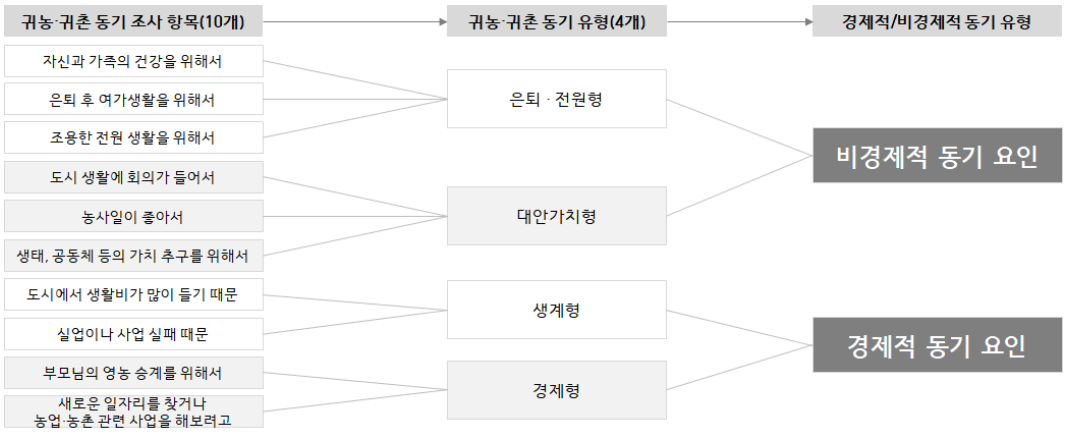
## 2.1. 분석 모형

도시민이 처음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나 실제 행동 여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귀농·귀촌 동기 유형에 따라 농촌 생

활을 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기대치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Williams and Jobe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 유형에 따라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마상진(2018) 등의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10개의 귀농·귀촌 동기 조사 항목을 선정한 후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등 4개의 귀농·귀촌 동기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구분된 4개 유형 중 '은퇴·전원형'과 '대안가치형'을 비경제적 동기 요인으로, '생계형'과 '경제형'을 경제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마상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상진(2018)의 연구와 같이 귀농·귀촌 동기 유형을 비경제적 동기 요인과 경제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1]

그림 1. 귀농 · 귀촌 동기 유형 구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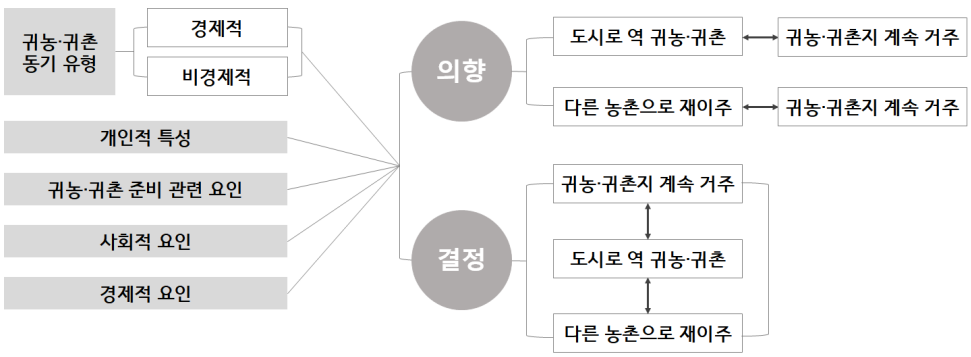
분석 모형에는 마상진 외(2016), 윤순덕 외(2017) 등의 연구에서 귀농·귀촌인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귀농·귀촌 준비 관련 변수, 사회적 요인 변수, 경제적 요인 변수와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특성 변수는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연고지, 학령기 자녀 유무 여부, 가족 동반 이주 형태, 귀농·귀촌 연차 등을 포함하며, 귀농·귀촌 준비 관련 변수는 귀농·귀촌 준비 기간,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을 포

1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귀농·귀촌자 장기추적조사'로 마상진(2018) 등의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동일함.

함한다. 또한 사회적 요인 변수는 갈등 경험 유무 여부, 주민 왕래 빈도,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 마을 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 지역 발전 기여에 대한 성취도를 포함하며, 경제적 요인 변수는 가구 소득, 자산 규모, 부채 규모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준비 관련 변수로서 귀농·귀촌 준비 기간만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의 효과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과 실제 역 귀농·귀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 중 도시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농촌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마상진 외 2016), 귀농·귀촌인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의향 모형'과 '결정 모형'에 동일한 설명 변수를 포함하였다. 의향과 실제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나 Jong et al.(1985)과 Dalen and Henkens(2013) 등 의향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동일한 요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인 비교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요인, 개인적 특성, 귀농·귀촌 준비 관련 요인,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 역 귀농·귀촌과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의향 모형'과 '결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자료: 저자 작성

## 2.2. 분석 방법

### 2.2.1. 의향 모형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및 관련 요인이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의향 모형은 추정식 (1)과 추정식 (2)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식 (1)의 $UINT$는 역 귀농·귀촌 의향을 의미하며, 식 (2)의 $RINT$는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을 가리킨다. 설명변수는 귀농·귀촌 동기 요인으로 경제적 동기 요인($ECONOMIC$) 변수와 비경제적 동기 요인($NON-ECONOMIC$)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SEX$), 나이($AGE$), 최종 학력($EDU$), 학령기 자녀 유무 여부($CHILDREN$), 연고지 여부($HOMETOWN$), 가족 동반 이주 형태($FAMILY$), 귀농·귀촌 연차($STAY$) 변수가 사용되었다. 귀농·귀촌 준비 관련 요인으로는 준비 기간($PREPARE$) 및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TRAING$) 변수가, 사회적 요인으로는 갈등 경험 유무 여부($CONFLICT$), 주민 왕래 빈도($NEIGHBOR$),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ATTITUDE$),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HAPPY$), 마을 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HARMONY$),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성취도($CONTRIBUTION$) 변수가 , 경제적 요인으로 전년도 가구 소득($INCOME$), 자산 규모($ASSET$), 부채 규모($DEBT$) 변수가 사용되었다.

(1) $$UINT_{it} = f(ECONOMIC_i, NON-ECNOMIC_i, SEX_i, AGE_{it}, EDU_i, HOMETOWN_i, CHLDREN_i, FAMILY_i, STAY_{it}, PREPARE_i, TRAING_i, CONFLICT_i, NEIGHBOR_{it}, ATTITUDE_{it}, HAPPY_{it}, HARMONY_{it}, CONTIRIBUTION_{it}, INCOME_{it-1}, ASSET_i, DEBT_i)$$

$$i = 1, 2, 3, \cdots, 1039, \quad t = 2014, 2015, 2016$$

(2) $$RINT_{it} = f(ECONOMIC_i, NON-ECNOMIC_i, SEX_i, AGE_{it}, EDU_i, HOMETOWN_i, CHLDREN_i, FAMILY_i, STAY_{it}, PREPARE_i, TRAING_i, CONFLICT_i, NEIGHBOR_{it}, ATTITUDE_{it}, HAPPY_{it}, HARMONY_{it}, CONTIRIBUTION_{it}, INCOME_{it-1}, ASSET_i, DEBT_i)$$

$$i = 1, 2, 3, \cdots, 1039, \quad t = 2014, 2015, 2016$$

‘의향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은 ‘전혀 없음’, ‘없음’, ‘아직 모름’, ‘많음’, ‘매우 많음’과 같이 선택형 범주이면서 순서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이 다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려는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종속 변수가 선택형 범주이고, 이 범주들 사이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순서형 변수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변수 $y^*$가 존재하고, 이는 아래와 같이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epsilon$는 평균이 0인 대칭 분포이며, 이의 누적분포함수는 $F(\epsilon)$로 정의한다(우재영 2009; 민인식·최필선 2019).

$$(3) \qquad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여기에서 $y^*$가 매우 낮은 사람은 5가지 선택 중에서 의향이 '전혀 없음(1)'을 선택하고, 그다음은 '없음(2)', '아직 모름(3)', '있음(4)', '매우 있음(5)' 식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관찰된 종속 변수 $y$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4) \qquad \begin{aligned} &y = 1 \ \text{ if } \ y^* \le \mu_1 \ \ (=0) \\ &y = 2 \ \text{ if } \ \mu_1 < y^* \le \mu_2 \\ &y = 3 \ \text{ if } \ \mu_2 < y^* \le \mu_3 \\ &y = 4 \ \text{ if } \ \mu_3 < y^* \le \mu_4 \\ &y = 5 \ \text{ if } \ \mu_4 < y^* \end{aligned}$$

여기에서 $\mu_1, \mu_2, \mu_3, \mu_4$는 경곗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형 안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다. $\mu_j$는 다양한 값들이 추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귀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mu_1$=0으로 정규화한다. 순서형 선택 모형에서는 개인 $i$가 $j$를 선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우재영 2009).

$$(5) \qquad \begin{aligned} \mathrm{Pr}ob(y=j) &= \mathrm{Pr}ob(\mu_{j-1} <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 \mu_j) \\ &= \mathrm{Pr}ob(\mu_{j-1}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 \mu_j - \sum_{k=1}^{k} \beta_k X_k) \\ &=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일반적으로 순서형 모형에서는 오차항 $\epsilon$에 대해 로지스틱 분포나 정규 분포를 가정하며,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할 경우 순서형 로짓 모형이 되고, 정규분포를 가정하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이 된다. 순서형 로짓 모형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추정값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한다. 따라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가 로짓 함수이므로 누적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우재영 2009; 민인식·최필선 2019).

$$(6)\quad \Pr ob(y \le j) = \Pr ob(y^* \le \mu_j) = \frac{e^{\mu_j - \sum_{k=1}^{k}\beta_k X_k}}{1 + e^{\mu_j - \sum_{k=1}^{k}\beta_k X_k}}$$

누적 로짓분포함수를 $L(\bullet)$로 나타내면 귀농·귀촌인 $i$가 의향 $j$를 선택할 확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우재영 2009).

$$(7)\quad \begin{aligned} \Pr ob(y=1) &= L(\mu_1 - \sum_{k=1}^{k}\beta_k X_k) = L(-\sum_{k=1}^{k}\beta_k X_k) \\ \Pr ob(y=2) &= L(\mu_2 - \sum_{k=1}^{k}\beta_k X_k) = L(-\sum_{k=1}^{k}\beta_k X_k) \\ &\vdots \\ \Pr ob(y=J) &= 1 - L(\mu_{j-1} - \sum_{k=1}^{k}\beta_k X_k)\ (\because P(y \le J) = 1, \mu_1 = 0) \end{aligned}$$

### 2.2.2. 결정 모형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및 관련 요인이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결정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추정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8)의 $RESI$는 현 거주지를 의미하며, 설명변수는 의향 모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8)\quad \begin{aligned} RESI_i = f(&ECONOMIC_i, NON-ECNOMIC_i, SEX_i, AGE_{it}, EDU_i, HOMETOWN_i, \\ &CHLDREN_i, FAMILY_i, STAY_{it}, PREPARE_i, TRAING_i, \\ &CONFLICT_i, NEIGHBOR_{it}, ATTITUDE_{it}, HAPPY_{it}, HARMONY_{it}, \\ &CONTIRIBUTION_{it}, INCOME_{it-1}, ASSET_i, DEBT_i) \end{aligned}$$

$$i = 1, 2, 3, \cdots, 1039, \quad t = 2014, 2015, 2016$$

'결정 모형'은 귀농·귀촌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에 계속 거주,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 중 어떠한 거주지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주지 선택은 '귀농·귀촌지 계속 거주', '도시로 역 귀농·귀촌',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와 같이 비순서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선택형 범주이지만, 비순서형인 경우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인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9). 귀농·귀촌

인이 위의 3개의 거주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강혜정 2006).

$$(9) \qquad \Pr ob(Y_i = j) = \frac{e^{\beta_j x_i}}{\sum_{k=0}^{2} e^{\beta_k x_i}}, \quad j = 0,1,2$$

위의 식 (9)를 표준화하기 위해 $\beta_0 = 0$으로 가정하면, 각 비순서형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qquad \Pr ob(Y_i = j) = \frac{e^{\beta_j x_i}}{1 + \sum_{k=1}^{2} e^{\beta_k x_i}}, \quad j = 0,1,2$$

$$\Pr ob(Y_i = 0) = \frac{1}{1 + \sum_{k=1}^{2} e^{\beta_k x_i}}$$

추정은 아래 식 (11)과 같이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여 이루어진다. 귀농·귀촌인 $i$가 $j$ 거주지를 선택하였을 경우, $d_{ij}$는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11) \qquad \ln L = \sum_{i=1}^{n} \sum_{j=0}^{2} d_{ij} \ln Prob(Y_i = j)$$

순서형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 추정된 계숫값은 선택 확률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추정된 계숫값이 각 설명변수의 각 선택에 대한 한계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순서형 및 다항 로짓 모형을 분석한 후에 각 유형의 선택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s)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강혜정 2006). 다항 로짓 모형의 경우 종속변수가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특성에 만족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으며, 이에 Hausman and McFadden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0.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의 종속변수가 IIA 가정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기각할 수 없었다.

## 2.3.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간 실시한 '귀농·귀촌자 장기 추적 조사'의 원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귀농·귀촌자 동일 집단 1,039명을 대상으로 추적하는 조사이나(마상진 2018),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2014년, 2015년, 2016년의 원자료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의향 모형'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의향' 변수는 2016년에만 조사된 자료이며, '결정 모형'의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현 거주지' 변수도 2017년 2월에 귀농·귀촌 패널 중 2015년, 2016년 조사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현 거주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의향'과 '실제 역 귀농·귀촌 결정' 분석은 2016년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 구분 | 변수 설명 | | 관측치 | 비중 | 평균 | 표준편차 |
|---|---|---|---|---|---|---|
| 종속변수 |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 | 전혀 없음=1 | 1,750 | 46.06 | 1.93 | 1.0527 |
| | | 거의 없음=2 | | 26.63 | | |
| | | 아직 모름=3 | | 17.26 | | |
| | | 조금 있음=4 | | 8.51 | | |
| | | 매우 많음=5 | | 1.54 | | |
| |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의향 | 전혀 없음=1 | 739 | 44.11 | 2.17 | 1.2612 |
| | | 거의 없음=2 | | 19.08 | | |
| | | 아직 모름=3 | | 15.70 | | |
| | | 조금 있음=4 | | 17.59 | | |
| | | 매우 많음=5 | | 3.52 | | |
| | 현 거주지 | 귀농·귀촌지 계속 거주=1 | 1,034 | 85.88 | 1.20 | 0.5180 |
| | | 도시로 역 귀농·귀촌=2 | | 8.61 | | |
| | |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3 | | 5.51 | | |
| 개인적 특성 | 성별 | 남=1 | 1,787 | 84.33 | 0.84 | 0.3636 |
| | | 여=0 | | 15.67 | | |
| | 나이 | 귀농·귀촌인의 나이(세) | 1,788 | - | 54.26 | 8.8825 |
| | 최종 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1 | 1,779 | 6.01 | 3.24 | 1.1320 |
| | | 고등학교 졸업=2 | | 27.37 | | |
| | | 전문대 졸업=3 | | 12.70 | | |
| | | 대학교 졸업=4 | | 44.41 | | |
| | | 대원학원 졸업=5 | | 9.50 | | |
| | 연고지 여부 | 남편 또는 부인의 연고지=1 | 2,298 | 37.34 | 0.37 | 0.4838 |
| | | 해당 없음=0 | | 62.66 | | |
| | 학령기 자녀 유무 여부 | 있음=1 | 2,220 | 42.84 | 0.43 | 0.4950 |
| | | 없음=0 | | 57.16 | | |

(계속)

| 구분 | 변수 설명 | | 관측치 | 비중 | 평균 | 표준편차 |
|---|---|---|---|---|---|---|
| 개인적 특성 | 가족 동반 이주 형태 | 가족 함께 이주=1 | 3,063 | 52.50 | 1.71 | 0.8525 |
| | | 가구주 먼저 이주 후 가족 합류=2 | | 26.35 | | |
| | | 가구주 혼자 이주 및 생활=3 | | 18.71 | | |
| | | 지인과 이주=4 | | 2.45 | | |
| | 귀농·귀촌 연차 | 귀농·귀촌 연차(년) (2016년 기준) | 3,087 | - | 3.82 | 1.6050 |
| 귀농 귀촌 준비 관련 | 귀농·귀촌 준비 기간 | 준비기간 없음=1 | 3,087 | 9.04 | 5.88 | 3.8825 |
| | | 6개월 미만=2 | | 13.99 | | |
| | | 6개월~1년 미만=3 | | 21.19 | | |
| | | 1~2년 미만=4 | | 19.44 | | |
| | | 1~2년 미만=5 | | 14.38 | | |
| | | 3년 이상=6 | | 21.96 | | |
|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시간 | 2,328 | - | 119.375 | 230.5276 |
| 사회적 요인 | 갈등 경험 유무 여부 | 있음=1 | 1,706 | 40.33 | 0.40 | 0.4907 |
| | | 없음=0 | | 59.67 | | |
| | 주민 왕래 빈도 | 거의 왕래 안함=1 | 1,791 | 4.91 | 3.90 | 1.0894 |
| | | 연 3~4회=2 | | 6.42 | | |
| | | 월 1회 이상=3 | | 16.36 | | |
| | | 주 1회 이상=4 | | 38.86 | | |
| | | 매일=5 | | 33.45 | | |
| |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 | 매우 부정적=1 | 2,331 | 2.19 | 3.15 | 0.7669 |
| | | 부정적=2 | | 14.80 | | |
| | | 보통=3 | | 50.06 | | |
| | | 긍정적=4 | | 31.40 | | |
| | | 매우 긍정적=5 | | 1.54 | | |
| |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 | 매우 실패한 편=1 | 1,781 | 1.29 | 3.67 | 0.8720 |
| | | 실패한 편=2 | | 5.90 | | |
| | | 보통=3 | | 34.19 | | |
| | | 성공적인 편=4 | | 41.38 | | |
| | | 매우 성공적인 편=5 | | 17.24 | | |
| | 마을 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 | 매우 실패한 편=1 | 1,773 | 2.31 | 3.49 | 0.9240 |
| | | 실패한 편=2 | | 10.27 | | |
| | | 보통=3 | | 37.00 | | |
| | | 성공적인 편=4 | | 37.45 | | |
| | | 매우 성공적인 편=5 | | 12.97 | | |
| | 지역발전기여에 대한 성취도 | 매우 실패한 편=1 | 1,774 | 9.86 | 2.75 | 1.0410 |
| | | 실패한 편=2 | | 34.27 | | |
| | | 보통=3 | | 33.31 | | |
| | | 성공적인 편=4 | | 16.40 | | |
| | | 매우 성공적인 편=5 | | 6.14 | | |

(계속)

| 구분 | 변수 설명 | | 관측치 | 비중 | 평균 | 표준편차 |
|---|---|---|---|---|---|---|
| 경제적 요인 | 가구 소득 | 500만 원 미만=1 | 1,794 | 9.75 | 5.03 | 2.7176 |
| | | 500만~1,000만 원 미만=2 | | 10.93 | | |
| | | 1,000만~1,500만 원 미만=3 | | 9.75 | | |
| | | 1,500만~2,000만 원 미만=4 | | 12.54 | | |
| | | 2,000만~3,000만 원 미만=5 | | 18.45 | | |
| | | 3,000만~4,000만 원 미만=6 | | 13.55 | | |
| | | 4,000만~5,000만 원 미만=7 | | 8.36 | | |
| | | 5,000만~6,000만 원 미만=8 | | 6.02 | | |
| | | 6,000만~7,000만 원 미만=9 | | 3.01 | | |
| | | 7,000만~8,000만 원 미만=10 | | 2.17 | | |
| | | 8,000만 원~1억 원 미만=11 | | 3.01 | | |
| | | 1억 원 이상=12 | | 2.45 | | |
| | 자산 규모 | 귀농·귀촌인의 자산 규모(만 원) | 2,163 | - | 30,827.29 | 42,554.14 |
| | 부채 규모 | 귀농·귀촌인의 부채 규모(만 원) | 1,995 | - | 8,132.48 | 17,099.3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 유형을 비경제적 동기 요인과 경제적 동기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귀농·귀촌 동기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에 실시한 '귀농·귀촌자 장기추적조사(3차년)'에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귀농·귀촌 관련 동기 항목이 귀농·귀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구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귀농·귀촌 관련 동기에 관한 조사 항목은 '도시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 '실업이나 사업 실패 때문', '부모님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도시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농사일이 좋아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등이었다. 조사 항목 10개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귀농 · 귀촌 동기 조사 항목 기초 통계량**

| 귀농 · 귀촌 동기 문항 | 5점 리커트 척도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1<br>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2<br>보통=3<br>영향을 줌=4<br>매우 많은 영향을 줌=5 | 3.57 | 1.16 |
|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 | 3.30 | 1.33 |
|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 | 3.56 | 1.24 |
| 도시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 | 3.19 | 1.42 |
| 농사일이 좋아서 | | 3.12 | 1.25 |
|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 | 2.98 | 1.37 |

(계속)

| 귀농 · 귀촌 동기 문항 | 5점 리커트 척도 | 평균 | 표준편차 |
|---|---|---|---|
| 도시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1<br>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2<br>보통=3<br>영향을 줌=4<br>매우 많은 영향을 줌=5 | 2.47 | 1.28 |
| 실업이나 사업 실패 때문 | | 1.94 | 1.33 |
| 부모님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 | 1.56 | 1.14 |
|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br>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 | 2.55 | 1.33 |

위의 10개 조사 항목에 대해 마상진(2018)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 결정에는 요인이 설명하는 변수들의 분산 크기를 가리키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2] , 총 변량 중 공통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까지 설명, 요인 부하량 0.5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마상진(2018)의 연구와 동일하게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등 4개의 동기 유형 요인이 도출되었다. '은퇴·전원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등 3개 항목, '대안가치형'은 '도시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농사일이 좋아서',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등 3개 항목, '생계형'은 '도시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 '실업이나 사업 실패 때문' 등 2개 항목, '경제형'은 '부모님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등 2개 항목으로 결집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귀농 · 귀촌 동기 요인 분석 결과**

| 귀농 · 귀촌 동기 문항 | 문항별 요인 부하량 | | | |
|---|---|---|---|---|
| | 은퇴 · 전원형 | 대안가치형 | 생계형 | 경제형 |
|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 0.611 | 0.418 | 0.074 | -0.186 |
|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 0.900 | -0.081 | 0.015 | 0.108 |
|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 0.828 | 0.161 | -0.036 | -0.093 |
| 도시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 0.035 | 0.603 | 0.414 | -0.322 |
| 농사일이 좋아서 | 0.087 | 0.695 | -0.140 | 0.133 |
|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 0.108 | 0.775 | -0.064 | 0.044 |
| 도시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 | 0.133 | 0.024 | 0.804 | 0.022 |
| 실업이나 사업 실패 때문 | -0.183 | -0.183 | 0.654 | 0.320 |
| 부모님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 -0.131 | -0.111 | 0.107 | 0.609 |
|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 0.097 | 0.241 | 0.063 | 0.779 |
| 고유치 | 1.9676 | 1.7579 | 1.2900 | 1.2599 |
| 누적설명력 | 19.68 | 37.26 | 50.16 | 62.75 |

2 고유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준다는 의미임.

마상진(2018) 등의 연구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된 4개의 귀농·귀촌 동기 유형 중 '은퇴·전원생활형'과 '대안가치형' 요인은 비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생계형', '경제형'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귀농·귀촌 유형을 다시 '경제적 동기 요인'과 '비경제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비경제적 동기 요인은 귀농·귀촌 결정 시 '은퇴·전원생활형'과 '대안가치형'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이 '영향을 주었거나(4점)', '매우 영향을 준 경우(5점)' 일 때 비경제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경제적 동기 요인도 '생계형'과 '경제형'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이 '영향을 주었거나(4점)', '매우 영향을 준 경우(5점)'이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비경제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비경제적 동기 및 경제적 동기 기초 통계량**

| 구분 | 변수 설명 | 관측치 | 평균 | 표준편차 |
|---|---|---|---|---|
| 비경제적 동기 | 있음=1, 없음=0 | 2,013 | 0.71 | 0.4521 |
| 경제적 동기 | 있음=1, 없음=0 | 1,977 | 0.16 | 0.3689 |

# 3. 분석 결과

## 3.1. 의향 모형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요인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먼저, 비경제적 동기 변수와 경제적 동기 변수를 살펴보면, 비경제적 동기로 귀농·귀촌한 이주민은 그렇지 않은 이주민과 비교하여 다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비경제적 동기로 귀농·귀촌한 이주민은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지에서의 생활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도시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의향보다는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생태공동체 추구 동기를 지닌 이주민이 역 귀농·귀촌 의향 확률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마상진 외 2016). 반면에 경제적 동기 변수는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동기로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주민이 농업직 종사는 포기하더라도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강대구 2007).

귀농·귀촌인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이하의 저 학력자 그룹보다 전문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 그룹에서 역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귀농·귀촌인의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마상진 외 2016). 귀농·귀촌 준비 관련 변수 중 귀농·귀촌 준비 기간은 도시 및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많이 이수한 귀농·귀촌인이 도시 및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귀농·귀촌 관련 교육이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농촌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동반 이주 형태 변수 중 지인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보다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과의 동반 이주가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지만, 본 분석에서 귀농·귀촌 시 이주에 대한 가족과의 원활한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가구주 혼자 귀농·귀촌한 경우가 가족과 함께 귀농·귀촌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보다 혼자 이주한 경우에 귀농·귀촌이나 적응에 있어서 가족 간의 불화 요인이 적어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귀촌 연차가 높은 귀농·귀촌인이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귀농·귀촌 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 연차가 높아질수록 귀농·귀촌인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경제 상황도 점차 나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마상진 외 2015; 마상진 외 2016).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중 갈등 경험 변수는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갈등을 경험해도 귀농·귀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함으로써 귀농·귀촌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민의 태도, 개인의 만족 및 행복에 대한 성취감 변수는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 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 변수는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기대한 귀농·귀촌 생활에 대해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높을수록 귀농·귀촌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확률이 높고, 마을 주민과의 화합과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및 태도가 귀농·귀촌인들의 지속적인 농촌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경제적 요인 변수는 귀농·귀촌인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문화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정착지를 결정하며(이해진·김철규 2013),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귀농·귀촌 생활을 힘들어하지만 역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마상진 외 2016).

**표 5. 의향 모형 분석 결과**

| 변수명 | | 도시로 역 귀농 · 귀촌할 의향 |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 |
|---|---|---|---|
| 비경제적 동기 여부 | | -0.5099*** (0.16) | 0.6618*** (0.22) |
| 경제적 동기 여부 | | 0.2579 (0.18) | 0.3785 (0.25) |
| 성별 (남=1, 여=0) | | -0.1376 (0.21) | -0.1946 (0.29) |
| 나이 | | 0.0117 (0.01) | -0.0172 (0.01) |
| 최종 학력 | | 0.1374** (0.07) | -0.0363 (0.09) |
| 연고지 여부 | | -0.1259 (0.15) | -0.3037 (0.21) |
| 귀농·귀촌 준비 기간 | | -0.0032 (0.04) | 0.0012 (0.06) |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 | -0.0007** (0.00) | -0.0009* (0.00) |
| 학령기 자녀 유무 | | -0.0804 (0.16) | -0.1523 (0.21) |
| (기준) 가족 함께 이주 | 가구주 이주 후 가족 합류 | 0.0551 (0.16) | 0.0319 (0.22) |
| | 가구주 혼자 이주 및 생활 | -0.0126 (0.18) | -0.4397* (0.24) |
| | 지인과 이주 | -1.4237** (0.66) | -0.7089 (0.66) |

(계속)

| 변수명 | 도시로 역 귀농 · 귀촌할 의향 |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 |
|---|---|---|
| 귀농·귀촌 연차 | -0.0774*** (0.02) | 0.0191 (0.02) |
| 갈등 경험 유무 여부 | -0.1033 (0.14) | 0.4004** (0.19) |
| 주민 왕래 빈도 | -0.0943 (0.07) | -0.1506 (0.10) |
|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매우 부정적=1, 부정적 =2, 보통=3, 긍정적=4, 매우 긍정적=5) | -0.2596*** (0.10) | -0.2223* (0.13) |
|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 (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 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0.7458*** (0.10) | -0.3046** (0.12) |
| 마을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 (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 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0.2007** (0.10) | -0.1807 (0.13) |
|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성취도 (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 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0.0354 (0.07) | -0.0256 (0.10) |
| 가구 소득 | -0.0080 (0.03) | -0.0128 (0.04) |
| 자산 규모 | -0.0000 (0.00) | 0.0000 (0.00) |
| 부채 규모 | 0.0000 (0.00) | 0.0000 (0.00) |
| N | 837 | 440 |
| Log likelihood | -968.51935 | -601.25956 |
| LR Chic | 207.92*** | 61.27*** |
| pseudo R2 | 0.0969 | 0.0485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p<0.01, p<0.05, p<0.1을 나타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 효과를 이용해 귀농·귀촌 동기 요인 등이 귀농·귀촌인의 도시로 역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확률 변화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한계 효과는 의향 모형 분석 결과(표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계산하였다.

표 6. 의향 모형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의 한계 효과

| 구분 | | 도시로 역 귀농 · 귀촌할 의향 | |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 | |
|---|---|---|---|---|---|
| | | 조금 있음 $\frac{dP(y=4\|x)}{dx}$ | 매우 많음 $\frac{dP(y=5\|x)}{dx}$ | 조금 있음 $\frac{dP(y=4\|x)}{dx}$ | 매우 많음 $\frac{dP(y=5\|x)}{dx}$ |
| 비경제적 동기 여부 | | -3.26% | -0.35% | 8.94% | 1.74% |
| 최종 학력 | | 0.88% | 0.10% | - | - |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 | -0.00% | -0.00% | -0.01% | -0.00% |
| (기준) 가족 함께 이주 | 가구주 이주 후 가족 합류 | - | - | - | - |
| | 가구주 혼자 이주 및 생활 | - | - | -5.51% | -1.03% |
| | 지인과 이주 | -5.25% | -0.54% | - | - |
| 귀농·귀촌 연차 | | -0.50% | -0.05% | - | - |
| 갈등 경험 유무 여부 | | - | - | 5.41% | 1.07% |
|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1.66% | -0.18% | -3.00% | -0.59% |
|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 | | -4.77% | -0.52% | -4.11% | -0.80% |
| 마을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 | | -1.28% | -0.14% | - | -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한계효과만을 나타냈음.

## 3.2. 결정 모형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동기 요인과 비경제적 동기 요인이 귀농·귀촌인의 실제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먼저, 경제적 동기 변수는 앞서 분석한 의향 모형에서는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대구(2007) 등의 연구에서 귀농 동기 집단 간 향후 농촌 거주 희망 여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실패로 귀농한 집단이나 영농 승계로 귀농한 집단의 도시 선호 비율이 높다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고지로 귀농·귀촌한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보다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를 결정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형 귀농·귀촌자가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자나 도시 이주자에 비해 계속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윤순덕 외 2017).

귀농·귀촌 준비 기간이 길었던 귀농·귀촌인일수록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을 낮추는 변수는 귀농·귀촌 준비 교육 이수 시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귀농·귀촌인이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을 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보건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농촌 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도시로 역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주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약 13%에 해당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윤순덕 외 2017; 김정태 2018).

의향과 실제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족 동반 이주 형태 변수 중 지인과 이주한 경우가 역 귀농·귀촌 의향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결정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귀농·귀촌 결정 시 가족과 동반하여 이주한 경우에 지인과 이주한 경우보다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의향은 높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행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지지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지지는 사회적 지지 중 하나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겪을 때 가족의 지지를 통해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거나 심리 상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완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en and Wills 1985; 김재엽·성신명·장건호 2016). 이지흠·하규수(2017) 등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 시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서 발생하는 불화로 역 귀농·귀촌 의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가족 지지 효과를 통해 귀농·귀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귀농·귀촌 초기부터 가족과 동반하여 이주하는 것이 지속적인 농촌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향 모형 결과와 동일하게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을 결정할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향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갈등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인이 갈등 경험이 없는 귀농·귀촌인보다 다른 농촌으로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할 의향을 높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게 될 경우 현재의 귀농·귀촌지에 계속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갈등 경험 극복 여부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7. 결정 모형 분석 결과**

| 변수명 | | 도시로 역 귀농 · 귀촌 | 다른 농촌으로 이주 |
|---|---|---|---|
| 비경제적 동기 여부 | | 0.7135<br>(0.95) | 0.4119<br>(1.03) |
| 경제적 동기 여부 | | 2.5753***<br>(0.94) | -0.0874<br>(1.23) |
| 성별<br>(남=1, 여=0) | | 0.0028<br>(1.36) | -0.8803<br>(1.18) |
| 나이 | | -0.0690<br>(0.06) | -0.0344<br>(0.05) |
| 최종 학력 | | -0.0947<br>(0.43) | 0.2198<br>(0.45) |
| 연고지 여부 | | -0.9232<br>(1.00) | -2.7752**<br>(1.27) |
| 귀농·귀촌 준비 기간 | | 0.3859<br>(0.28) | -0.5410*<br>(0.32) |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 | -0.0071*<br>(0.00) | -0.0136<br>(0.01) |
| 학령기 자녀 유무 | | 2.4614**<br>(1.08) | 1.4427<br>(1.05) |
| (기준)<br>가족 함께 이주 | 가구주 이주 후 가족 합류 | 2.5185**<br>(1.07) | 0.8125<br>(0.95) |
| | 가구주 혼자 이주 및 생활 | 1.6375<br>(1.20) | -0.2872<br>(1.13) |
| | 지인과 이주 | 4.4803***<br>(1.70) | -15.0341<br>(2068.06) |
| 귀농·귀촌 연차 | | -0.2504*<br>(0.14) | -0.1912<br>(0.14) |
| 갈등 경험 유무 여부 | | -1.8826*<br>(1.06) | -3.1531**<br>(1.34) |
| 주민 왕래 빈도 | | 0.1968<br>(0.45) | -0.1268<br>(0.43) |
| 마을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br>(매우 부정적=1, 부정적 =2, 보통=3,<br>긍정적=4, 매우 긍정적=5) | | 0.8403<br>(0.61) | -0.6111<br>(0.65) |
| 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성취도<br>(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br>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 -0.0265<br>(0.56) | -0.2246<br>(0.54) |
| 마을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br>(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br>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 -0.4185<br>(0.64) | -0.3752<br>(0.57) |
| 지역발전기여에 대한 성취도<br>(매우 실패한 편=1, 실패한 편=2, 보통=3,<br>성공적인 편=4, 매우 성공적인 편=5) | | -0.0006<br>(0.42) | 0.5945<br>(0.45) |
| 가구 소득 | | 0.1585<br>(0.15) | -0.1777<br>(0.19) |

(계속)

| 변수명 | 도시로 역 귀농 · 귀촌 | 다른 농촌으로 이주 |
|---|---|---|
| 자산 규모 | -0.0000<br>(0.00) | -0.0000<br>(0.00) |
| 부채 규모 | -0.0000<br>(0.00) | -0.0001<br>(0.00) |
| 상수 | -5.8739<br>(4.28) | 5.6078<br>(4.12) |
| N<br>Log likelihood<br>LR Chic<br>pseudo R2 | | 448<br>-58.440097<br>74.30***<br>0.3886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p<0.01, p<0.05, p<0.1을 나타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 효과를 이용해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요인 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과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확률 변화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한계 효과는 결정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계산하였다.

**표 8. 결정 모형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의 한계 효과**

| 변수 | | 실제 도시로 역 귀농 · 귀촌 결정 $\frac{dP(y=2\|x)}{dx}$ | 실제 다른 농촌으로 이주 결정 $\frac{dP(y=3\|x)}{dx}$ |
|---|---|---|---|
| 경제적 동기 여부 | | 0.41% | - |
| 연고지 여부 | | - | -0.16% |
| 귀농·귀촌 준비 기간 | | - | -0.03% |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시간 | | -0.00% | - |
| 학령기 자녀 유무 | | 0.39% | - |
| (기준)<br>가족 함께 이주 | 가구주 이주 후 가족 합류 | 0.62% | - |
| | 가구주 혼자 이주 및 생활 | 0.22% | - |
| | 지인과 이주 | 4.53% | - |
| 귀농·귀촌 연차 | | -0.04% | - |
| 갈등 경험 유무 여부 | | -0.30% | -0.18%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한계효과만을 나타냈음.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유형이 귀농·귀촌인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순서형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도시와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과 결정 간 영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하고자 하는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유형이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경제적 동기로 이주한 도시민이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과 함께 이주한 경우나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시간, 높은 귀농·귀촌 연차가 역 귀농·귀촌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변수 중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 주민의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개인의 만족 및 행복과 마을 주민과의 화합에 대한 성취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귀촌 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최종 학력이 높은 귀농·귀촌인일수록 역 귀농·귀촌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경제적 동기를 지니거나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이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시간과 마을 주민들의 태도, 개인의 행복 및 만족에 대한 성취도는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확률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비경제적 동기 요인이 실제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동기로 귀농·귀촌한 이주민이 역 귀농·귀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귀농·귀촌인과 가구주가 먼저 귀농·귀촌지로 이주한 후 가족이 합류한 경우, 지인과 이주한 경우에 역 귀농·귀촌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많고,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이 역 귀농·귀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 연고지로 귀농·귀촌한 이주민과 귀농·귀촌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진 이주민이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심할 때 비경제적 동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이 높은 반면, 경제적 동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에는 실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이수 시간과 귀농·귀촌 연차가 높아질수록 귀농·귀촌인이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과 실제 결정 확률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겪으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은 갖게 되지만, 실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하거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귀농·귀촌인은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확률이 높고, 귀농·귀촌 초기부터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보다 가구주가 먼저 이주 후 가족이 합류하거나 지인과 이주한 경우에 실제 역 귀농·귀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 주민의 우호적인 태도와 귀농·귀촌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감이 높을수록 귀농·귀촌인들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 도시로 역 귀농·귀촌할 확률은 경제적 동기로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주민이 높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동기를 지닌 귀농인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많이 이수한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귀촌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 지역의 초·중·고 교육 정책과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초기부터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할 경우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은 높고, 실제 역 귀농·귀촌을 결정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전에 가족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귀농·귀촌 초기부터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향후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농촌 생활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 동기 유형을 경제적 동기 요인과 비경제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도시로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개인적 특성, 사회적 요인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의향과 결정 각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실제 역 귀농·귀촌인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역 귀농·귀촌 의향과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의 샘플 수가 적어 동

기 유형에 따른 역 귀농·귀촌 영향 요인 차이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 중 비경제적 동기 요인 그룹과 경제적 동기 요인 그룹 간 역 귀농·귀촌 결정 요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귀농·귀촌자 장기추적조사'는 매년 조사 항목이 상이하게 나타나 역 귀농·귀촌 결정 요인에 따른 귀농·귀촌 정착률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귀농·귀촌 연차가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귀농·귀촌자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요인의 변화로 귀농·귀촌을 포기하게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1호. pp. 59-98. 한국농·산업교육학회. http://doi.org/10.23840/agehrd.2007.39.1.59

강혜정. 2006.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농촌경제』 제29권 제5호. pp. 29-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doi.org/10.36464/jrd.2007.29.5.002

김경덕. 2004.『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덕, 홍준표, 임지은. 2012.『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호, 정성호. 2018.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역사회학』 제19권 제1호. pp. 5-26. 지역사회학회.

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 제51권. pp. 187-218.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http://doi.org/10.16975/kjfsw.2016..51.006

김정섭, 마상진, 김종인, 오정훈. 2016.『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태. 2018.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2호. pp. 97-120. 한국지방행정학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2019. 6. 27. “2018년 기준「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용욱, 남기천, 남승희, 최윤지. 2015. “귀농 귀촌 시기별 귀농 귀촌 과정 및 경제 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분석.”『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7권 제2호. pp. 1-21. 한국농·산업교육학회. http://doi.org/10.23840 /agehrd.2015.47.2.1

마상진, 남기천, 최윤지. 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농촌사회』 제26권 제1호. pp. 37-63. 한국농촌사회학회. UCI : G704-000099.2016.26.1.002

마상진. 2018. “귀농귀촌동기유형과 관련 변인.”『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0권 제1호. pp. 53-72.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민인식, 최필선. 2019.『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박대식, 남승희. 201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농촌사회』 제25권 제1호. pp. 41-87. 한국농촌사회학회. UCI : G704-000099.2015.25.1.003

박시현, 최용욱. 2014.『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일보. 2018. 9. 27. “인생 2막 꿈꾸다 ‘귀농 난민’ 전락... 눈물로 쓴 ‘전원 일기’ [귀농·귀촌 50만 시대의 그늘].” 검색일: 2020. 6. 13.

심문보, 정건섭. 2019. “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분석.”『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3호. pp. 57-81. 한국지방행정학회.

우성호, 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농촌지도와 개발』 제22권 제2호. pp. 101-116. 한국농촌지도학회. UCI : G704-SER000009844.2015.22.2.002

우재영. 2009.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제2호. pp. 405-438. 한국농촌지도학회. UCI : G704-SER000009844.2009.16.2.002

윤순덕, 최정신, 마상진, 남기천. 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농촌사회』 제27권 제1호. pp. 59-93. 한국농촌사회학회. http://doi.org/10.31894/JRS.2017.06.27.1.59

이민수,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제4호. pp. 1137-1170. 한국

농촌지도학회. UCI : G704-SER000009844.2012.19.4.004

이지흠, 하규수. 2017. “귀농 귀촌에서 귀농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가족 지지도를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5호. pp. 39-53. 한국벤처창업학회. http://doi.org/10.16972/apjbve.12.5.201710.39

이해진, 김철규. 2013. “대안가치지향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 『농촌사회』 제23권 제2호. pp. 49-90. 한국농촌사회학회. UCI : G704-000099.2013.23.2.009

이희찬, 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제13권 제2호. pp. 127-149. 한국농어촌관광학회.

장민기, 이준우, 허재욱, 김혜민, 채상헌, 김기현, 송기선. 2014. 『귀농·귀촌 인구와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

허철무, 하규수. 2014. “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2호. pp. 233-250. 한국벤처창업학회. http://doi.org/10.16972/apjbve.9.2.201404.233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vol. 50, no. 2, pp. 179-211.

Ajzen, I., Brown, T. C. & Carvajal, F. 2004. “Explaining the discrepancy between intentions and actions: the case of hypothetical bias in contingent valu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no. 9, pp. 1108-1121.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079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no. 2, pp. 310-3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De Jong, G.F., Root, B.D., Gardner, R.W., Fawcett, J.T. & Abad, R.G. 1985. “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Decision making in a rural Philippine province.” *Population and environment.* vol. 8, no. 1-2, pp. 41-62. https://doi.org/10.1007/bf01263016

Sheeran, P. & Webb, T. L. 2016. “The intention-behavior gap.”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10, no. 9, pp. 503-518. https://doi.org/10.1111/spc3.12265

Williams, A. S. & Jobes, P. C. 1990. “Economic and quality-of-life considerations in urban-rural migr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vol. 6, no. 2, pp. 187-194. https://doi.org/10.1016/0743-0167(90)90005-s

Van Dalen, H. P., & Henkens, K. 2013. “Explaining e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ur in the Netherlands, 2005−10.” *Population Studies*. vol. 67, no. 2, pp. 225-241. https://doi.org/10.1080/00324728.2012.725135

Von Reichert, C., Cromartie, J. B. & Arthun, R. O. 2014. “Impacts of Return Migration on Rural U.S. Communities: Impacts of Return Migration.” *Rural sociology.* vol. 79, no. 2, pp. 200-226. https://doi.org/10.1111/ruso.12024

원고 접수일: 2020년 07월 30일
원고 심사일: 2020년 08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0년 09월 24일